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은 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 혜 정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양 은 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 혜 정

# 인 준 서

김혜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대전시 D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중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아동 14명을 선별 후 각각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3년 4월 5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주 3회,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 관계 기술 척도와 수정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교사용)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nn Whitney 검정과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을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음악치료의 구성은 기악합주중심의 음악치료를 바탕으로 교류적인 악기연주 경험을 통한 성취감 고취 및 타인인식, 리더의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인식 및 자아상 확립, 자기주도적인 의사표현, 지시수용능력,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협동심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또래 관계 기술의 변화에 있어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또래 관계 기술 점수와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의 점수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 도구임을 시사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가설 .....	6
3. 용어의 정의 .....	7
1) 기악합주활동 .....	7
2) 지역아동센터 .....	7
3) 또래 관계 기술 .....	7
<b>II. 이론적 배경</b> .....	8
1. 지역아동센터 .....	8
1)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 .....	8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 .....	10
2. 또래 관계 기술 .....	13
1) 또래 관계 기술 .....	13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적 특성 .....	16
3. 기악합주활동 .....	18
1) 기악합주활동의 치료적 의의 .....	18
2) 기악합주활동과 또래관계와의 연계성 .....	22

<b>Ⅲ. 연구 방법</b> .....	<b>26</b>
1. 연구대상 .....	26
2. 측정도구 .....	26
1) 또래 관계 기술 척도 .....	26
2)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	27
3. 연구 설계 및 절차 .....	28
1) 연구 설계 .....	28
2) 연구 절차 .....	29
4.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	30
1)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 구성 .....	30
2)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용 .....	31
5. 자료 분석 .....	34
<b>Ⅳ. 연구 결과</b> .....	<b>35</b>
1.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정 .....	35
2. 가설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분석 .....	36
<b>Ⅴ. 결론 및 제언</b> .....	<b>44</b>
1. 결론 .....	44
2. 제언 .....	46
<b>참 고 문 헌</b>	
<b>부 록</b>	
<b>ABSTRACT</b>	

## 표 목 차

<표1> 또래 관계 기술 척도 문항 구성 .....	27
<표2>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교사용) 문항 구성 .....	28
<표3> 연구 설계 모형 .....	29
<표4>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세션 구성 .....	30
<표5>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	31
<표6> 또래 관계 기술 척도에 따른 동질성 검사 결과 .....	35
<표7>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에 따른 동질성 검사 결과 .....	36
<표8> 두 집단 간 또래 관계 기술 점수 검증 결과 .....	37
<표9>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차이 .....	38
<표10> 두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점수 사후-사전 검증 결과 .....	40
<표11> 실험집단의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차이 .....	42

## 그림 목 차

<그림1> 기약합주활동의 영역 .....	18
<그림2> 집단 간 또래관계 기술 점수 차이 .....	38
<그림3>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	39
<그림4>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점수 차이 .....	41
<그림5> 실험집단의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	43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 발달에 있어서 아동기는 지적, 사회적, 성격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회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개념과 더불어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또래 및 교사들과의 관계로 확대된다. 에릭슨에 의하면 아동기란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경험과 지적인 기술습득을 통해 근면성을 형성하면서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시기이다(박성연, 도현심, 2002). 하지만 이 시기에 근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소외감, 부적절함과 열등감을 초래하여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며 빈부격차 심화, 빈곤의 대물림, 경제파탄, 이혼, 해체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종화, 2012). 2012년 상반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차상위(저소득)아동이 37,253명(3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승인 아동 31,104명(29.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아동이 24,926명(23.3%), 일반아동이 13,888명(13.0%)순으로 조사되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 대부분의 빈곤가족의 아동들은 부모들이 대개 생계를 위해 장시간 혹은 불규칙한 노동을 하게 되므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언어적인 훈계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부모의 단절된 정서적 유대는 내면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부적절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행동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훈, 신혜중, 2008).

이렇게 아동보호 및 양육, 심리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거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었던 보육서비스를 학령기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서영숙, 허정경, 오현주, 2003).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의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김정열, 2012). 첫째, 지역사회 아동발달을 위해 아동 및 가정에게 상담 및 심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 둘째,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한 지원, 셋째, 학교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및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학습위주의 교육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어, 아동의 실질적인 필요와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사 관련 시설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도 특별히 다를 바 없어,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경림, 2007). 따라서 제한된 학습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기 보다는 각 아동의 특성에 따라 각 아동만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적성 교육과 심도깊은 사회정서적인 지원서비스, 세분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의 좀 더 구체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며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 속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바로 또래집단에서의 성공적인 관계의 경험이다. 새학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가장 큰 고민은 ‘공부(성적)’, 그 뒤를 이어 2위는 ‘또래관계(친구사귀기)’인 것으로 조사되어(김민욱, 2012) 요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또래와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또래관계가 집단적인 성격을 보이고 서열을 갖게 되며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에게 미치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또래관계가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천유리, 한기순, 2012)로 자리잡은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의 대부분은 빈곤가정으로 취약한 환경에 방치되거나 결손 및 해체를 경험한 가정에 속해 있다. 그리고 적절한 보살핌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세대의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빈곤·해체가정의 아동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함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정서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신체적인 발달측면의 문제들 외에도 따돌림, 낮은 자존감, 부족한 자기표현 및 사회기술능력, 가족해체로 인한 고립감 등의 문제를 갖게 되며, 이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빈곤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의 표적 집단이 되고 있다(이혜경, 2007).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술 및 사회 관계적인 형성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빈곤 및 해체가정이 대부분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더욱 이러한 가정안에서의 경험이 현실적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자아형성과 또래관계의 형성, 또래들과의 다양한 상황 안에서의 대처방안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적 측면의 기술향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김정희·정다운(2011)의 연구에서는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밝힌 바 있으며, 전소은(2011)은 집단 난화상호이야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아동들간의 또래관계 향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수정·이현림(2008)의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박진재, 이은혜(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이 또래와의 사회적 행동 특성을 변화시키고 또래 수용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치료매체로 음악을 사용한 연구에서 김현정(2012)은 오르프 음악치료를 통한 프로그램 적용이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신미경, 정규진, 최애나(2011)의 연구에서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인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다양한 음악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기악합주에 대한 경험은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악합주활동은 가창, 감상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주며 악기를 사용하여 무엇이든지 표현해보고자 하는 욕구를 발생시킴으로써 표현의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합주 활동 안에서의 구조를 통해 자신의 차례를 인지하고 타인의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등 근면성이나 사교성, 준법성을 높여 서로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선하, 2009). 더 나아가 또래와 함께 하는 기악합주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게 되며, 상호간의 공감과 수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관련된 합주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수민(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합주가 또래 아동들의 적극적인 상호작

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갖는 치료적이며 긍정적인 가능성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1-2.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또래 관계 기술 하위 영역별 사전-사후 점수 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2-2.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의 하위 영역별 사전-사후 점수 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 1) 기악합주활동

기악합주 활동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서로의 호흡을 맞추어 나 혼자만의 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악합주활동은 타악기(드럼, 봉고, 탬버린, 리듬스틱, 우드블록, 카바사, 셰이커 등)와 가락악기(자일로폰, 키보드, 글로켄슈필, 톤차임, 핸드벨 등)를 모두 사용하며, 합주활동 안에서 음악외적인 또래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 16조 제 11항). 본 연구에서의 지역아동센터는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의 법령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가진 곳을 의미한다.

#### 3) 또래 관계 기술

또래 관계 기술은 사회적 관계기술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요소로 또래관계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자존감, 주도성, 협동, 공감능력, 자기통제 등의 기술을 의미한다.

##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를 통해 또래 관계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 프로그램, 또래 관계 기술에 관련된 이론적 설명과 선행연구, 기악합주활동이 치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래 관계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아동센터

#### 1)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서비스 체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취학 아동의 학교 외에 시간에 대한 보호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정익중, 박현선, 오승환, 임정기, 2009).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한 부분체계로서 지역사회의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 일원으로서 참여하거나 혹은 센터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서유나, 2006).

보건복지부(2013)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기

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 둘째는 교육적 기능으로 아동의 학습능력의 제고와 학교부적응을 해소하며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한다. 셋째는 아동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넷째는 지역사회자원 확보,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지역사회연계) 등으로 그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아동센터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며 교육, 복지, 재통합의 접근으로서 여타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아동복지 시설과 차별화된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내에서 소규모 가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아동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낙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개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허혜진, 2010). 그러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시설로서의 의의와 급속한 양적증가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체제의 미비로 인한 여러 가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공창숙, 2008). 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의 지적, 심리·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기능과 활동 면에서 많은 제약과 문제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과 설비의 측면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심경순, 박영준, 2010).

##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제공을 통해 학교교육 및 가족기능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정규운영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생활지원, 정서지원)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보호, 급식 지원 및 위생지도, 의료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교육(학습지원)프로그램은 아동의 학습 능력 제고와 학교부적응 해소와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준별 학습지도, 학교숙제지도, 특기적성교육 등을 포함한다. 셋째, 문화적 지원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 및 체험활동, 캠프, 체육대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넷째, 복지서비스(아동정서지원) 제공으로 아동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사례관리, 아동상담, 부모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지원으로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기능 및 사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연 및 후원, 지역복지활동, 기관홍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돌봄이나 소극적인 가정 대체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적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지지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윤혜순, 2009). 그러나 실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에만 치중하여 실제로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의 대부분들이 교과수업(영어, 수학, 국어)에

치중되고 있으며 주로 방과 후 교사가 일방적으로 과목을 정하거나 부모의 요구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과목을 배정하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윤향미, 2007). 뿐만 아니라 권오인(2002)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 연구결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문제, 환경문제, 교사들의 자질 문제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여 아동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 선택에 있어서 교과중심 보다 학령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회, 정서와 관련된 프로그램, 예체능 프로그램, 특기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구체적으로 편성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유나(2006)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학습지도(98%),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캠프인 반면, 특기적성을 실시하는 곳이 57.6%, 사회성 교육 49.7%로 기관의 절반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또 구은미(2010)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 학습지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아동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송숙(2008)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 숙제지원 프로그램은 100%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예체능 교육은 조사대상 센터마다 프로그램이 큰 차이가 낮고 운영비율 또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례관리 프로그램에서 아동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64% 정도에 그쳤으며, 개별상담, 관찰기록, 집단상담, 심리검사, 적성검사 등의 아동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나 주로 부적응 아동이나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만 제

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경옥, 이은희(2005)는 각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다양한 집단 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아동들의 문제와 활동의 특성, 환경적 영향이 다양하므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상이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집단 프로그램들과 메뉴얼화 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선정하여 기초자료로 삼아야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권택영(2010)의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참여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체험학습(50%)이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영화나 연극(44.1%), 방학 중 캠프(30.7%), 체육(29.9%), 견학(23.6%), 영어교실(21.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저소득가정이거나 한부모, 조손가정의 아동이기에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야외활동이나 체험학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미루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박사라(2000)의 연구에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의 역할이자 또래집단 공동체로 편안하고 신나는 장소로 인식되고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또한 이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느끼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른 만족감은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되는 것으로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과 개인의 기대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Angus Campbell, Philip E. Converse, Willard L. Rodgers, 1976). 또 아동의 만족도와 더불어 지역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지금보다 차별화된 다양성을 갖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진다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짐과 동시에 본연의 목적에 근거한 타 사회복지기관과 차별화된 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 2. 또래관계기술

### 1) 또래관계기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최초에 경험하는 타인은 어머니이고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에서 가족, 친척, 또래관계 등으로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어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경험을 하게 된다(정혜원, 2008). 그러나 사회가 핵가족화, 산업화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혈연관계는 점차 축소되었다. 편부모, 취업모 가정의 증가와 함께 아동들이 예전보다 이른 시기에 더 오랫동안 위탁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구조화된 또래집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또래와의 관계가 아동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Asher, 1990).

또래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덜 권위적이고 덜 비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인과의 관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즉 아동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새로운 역할, 사고, 행동 등을 보다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된다(박주희, 이은해, 2001).

아동기에 또래관계형성 및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경험은 인간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요구된다.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회적 기술은 필수적인데, 예를 들면 친구를 만드는 기술,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기술, 또래의 괴롭힘에 대항하는 기술,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Asher & Coei, 1990). Schaffer(2000)는 아동기에 형성되는 또래집단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행동기준이 있어서, 또래집단에 의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 특성을 지닌 아동은 쉽게 집단에 수용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행동기준 즉,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나 결함으로 인해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술을 표출하게 되면 또래들로부터 위축되거나 철회된다(김미영, 2001). 또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어 결국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진다. 그리하여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초적인 사회기술을 배워 나갈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며 결국 사회 적응이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Caldarella와 Merrell(1997)은 또래관계기술이란 아동의 사회기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다른 사회적 행동들의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았다. 즉 개인이 또래와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책략이며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에게 받아들여지고 가치가 있으며 개인과 서로에게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Asher, Renshaw와 Hymel(1982)은 또래관계 기술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데 요구되는 상호작용 관계주도 기술, 또래와 상호작용 중에 야기되는 갈등을 조절하는데 요구되는 상호작용 갈등조절 기술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Dodge(1983)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래에게 접근하는 방법, 즉 또래와 관련이 있는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한 또래관계 기술로 포함시켰다.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는 공감, 협동, 자기노출,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조절 등이 포함되며 이런 하위요인 중 아동기에 획득해야 할 것으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데 필요한 협동과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자기주장과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적절하게 나타내는데 필요한 자기조절기술을 꼽을 수 있다(김순자, 조용태, 1998). 이렇듯 또래 관계 기술은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아동에게 있어서 또래의 수용이나 배척과 관련이 있으며(Gottman, Gonso, & Rasmussenm 1975), 아동들의 정서적 표현과 정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관련이 있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인지, 발달적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 관계 기술에 관련된 연구들은 초기인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중재의 형태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초기단계에는 ‘사회적 행동은 학습될 수 있다’라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교육적 측면인 강화, 모델링의 기법을 활용한 지도방법의 중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치료적인 중재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더욱 세분화된 요소들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손명희, 오정숙, 김현영(2007)의 연구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한 인지재구조화 프로그램을 중재 시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밝혀내었다. 윤지현(2004)은 노래 부르기와 동작, 송라이팅 등의 활동을 통해 혼자 노는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김선영(2009)은 즉흥연주와 난타를 중심으로, 정현희(2008)는 집단미술치료의 중

재로, 조은희(2009)는 플루트 앙상블을 통해 각각 관계 기술을 향상시켰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들은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을 주목하여 적절한 학습과 관계의 기회들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적 특성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대부분 결손·빈곤(저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며 열등의식과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임영희, 2002)으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사회성, 지배성, 안정성이 낮다. 그리고 적절한 인성발달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쉽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며 항상 경제적인 긴장상태에 놓여 있기에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인성구조의 중심(박종란, 2012)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 긴장, 불안이 조장되고 지속적인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학교생활 유지가 어렵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집단 따돌림의 표적 집단(신이선, 2012)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물리적인 방법을 선호하며, 친구들을 때리고, 욕하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하다(유희정, 1997). 이러한 사회적 기술이 결여된 아동들은 효과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적 목록들을 습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 능숙하게 관계하기가 어려워 또래로부터 당황, 적의를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대인회피 반응을 강화(안지

선, 2011)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맺게 되는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방해한다. 결국 또래 뿐 아니라 성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며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O'conner, 1972).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며, 이에 대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른 선행연구로 먼저 박혜신(2003)의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아동이라는 점에서 착안해볼 때, 이들은 학교, 또래집단,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부족, 거부 및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고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과 부모자녀간의 빈약한 애착으로 심리 적응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이렇게 사회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 아동들은 문제해결능력이나 대인관계적인 능력이 떨어지며, 해당시기에 알맞은 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2006)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사회기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이완 프로그램이나 사회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가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아동들의 적응과 관계에 관련한 대인관계기술에 대한 연구도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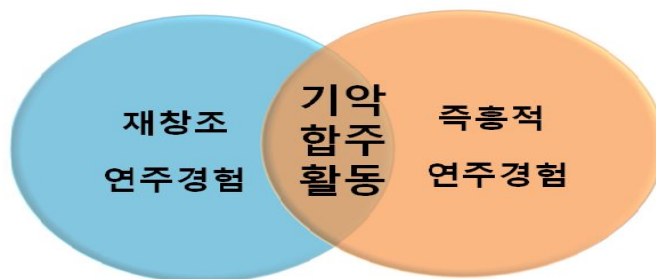
예전의 아동들에 비해 요즘 대부분의 아동들이 일찍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면서 부모형제 보다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더욱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특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특정 연령집단의 가치와 경험을 창조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

다(강문희, 2004). 무엇보다 가정의 결손이나 빈곤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 이후의 비행이나 범죄,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또래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욱 적절한 환경적, 제도적, 교육적,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3. 기악합주활동

#### 1) 기악합주활동의 치료적 의의

악기합주(ensemble)는 음악치료 영역에서 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음악치료 대상자들이 정신, 신체,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활동 개입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데, 악기합주는 그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김종인, 2005). 치료적 음악경험은 크게 재창조 연주경험, 즉흥적 경험, 창작적 경험, 감상적 경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기악합주활동은 네 가지의 치료적 음악경험 중 재창조 연주경험과 즉흥적 경험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다.



<그림1> 기악합주활동의 영역

재창조 연주경험은 악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악기연주활동 및 합주활동을 포함하나, 이것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음악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이 일반 음악활동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재창조 음악활동에서의 악기합주의 경험은 대소근육 발달,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되며 모방을 격려한다. 그리고 창조성과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킨다(장혜성, 2007). 이와 동시에 사회성, 동조성 등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 제시하고 있다(유덕희, 1994). 또한 아동들로 하여금 예측감과 만족감을 지연시킴으로서 과거와 미래 사건에 대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Prizant & Wetherby, 1990).

재창조 음악활동의 치료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연주나 합주를 통한 음악치료 활동이 지시 사항 따르기 등과 같은 인지기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또래들과 함께 하는 합주경험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르며 지시를 따르거나 집중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등 자신의 역할과 타인과의 관계형성 유지, 발달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경험으로 조화로우며 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권주희, 2010).

즉흥적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대개 즉흥적인 연주 또는 소리나 음악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음악적인 활동이 진단평가, 치료평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음악 안에서 개인의 행동을 반영, 지지, 변화함으로써 구체화시키고 음악적인 형태로 해석해 주며, 개인의 요구, 문제, 흥미, 강도, 행동, 정서 상태를 인격화·개별화시켜준다(조정은, 2009). 즉흥연주의 경험은 아동들에게 있어 창작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나아가 창의적인 음악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제

공한다(조원석, 2001). 또한 즉흥연주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주어진 음악적 환경 안에서 가장 완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를 제공한다. 즉흥연주 경험 안에서의 치료적인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즉흥연주경험 안에서의 악기연주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까지도 악기연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즉흥적인 악기연주의 경험으로 인해 자기조절의 경험을 제공한다.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구조 속에서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며, 그 구조 속에는 수많은 형식과 규칙들이 내재되어 있다. 때문에 음악의 구조에 맞춘 악기연주활동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도록 돕고 행동을 조절하고 구조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박지은, 2012).

기악합주는 화성의 아름다움과 음악의 입체미 등을 통하여 음악의 심오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여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를 수 있는 등 음악적 및 인간적 측면에서 높이 살만한 활동이다(김선하, 2008). 즉 아동은 기악합주를 통해 음악적 의미와 더불어 인간적인 어우러짐의 조화를 느껴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박지영, 2002). 또한 기악합주는 여러 가지 악기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 넓은 음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할 수 있다. 더불어 합주의 과정에서 타인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또 가락연주 뿐만 아니라 리듬연주, 대선율 연주, 오스티나토 연주 등을 합주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독주, 제주, 중주, 반주 등의 연주형태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의미한다(이미연, 2005).

기악합주활동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치료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첫째, 그룹 안에서의 악기합주활동은 아동들에게 음악적 구조 활동으로서의 참여에 깊은 연관을 가진다. 또한 아동들이 직접 연주하는 악기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은 음악활동 그룹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룹 안에서 타인을 인식하여 사회적용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대하여 Goldberg(1989)는 악기합주활동을 통해 그룹 안에서 각자의 활동이 하나로 어우러짐으로 진정한 공감의 발달과 그룹력을 고무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Bailey(1983)는 연주하는 악기를 통한 직접적인 경험이 다른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타인을 인식하여 사회적용행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둘째, 합주의 경험은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음악 경험중의 하나로 특히 음악치료에서의 악기연주는 결과의 창출이 아닌 참여 과정에서의 과제 수행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경험을 갖게 한다. 이는 음악적 경험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자신감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를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정효숙, 2008).

셋째, 기악합주활동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활용 및 신장을 이룰 수 있으며 합주 수업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서로간의 토론과정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주(2007)의 연구에서 외동이의 태도변화를 위한 오스티나토 합주 활동을 연구한 결과, 외동이의 사회적 태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활동성, 협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서현주(2004)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 교회기악합주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의 설문문을 통해 합주활동이 협동성을 증가시켰다

고 보고하고 있다. 정은나(2006)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남학생의 음악교과 인식 변화를 위한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악합주가 학생들간의 상호협력과 공동체 감각, 동료들과의 조화로움 등을 향상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악합주활동에 대해 김관일, 박인수(2003)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악합주활동은 풍부한 음악적 기능과 표현력에 대해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미학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활동이다.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정인지체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다양한 음의 세계를 탐구,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기악 합주 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감과 집중력, 신체적 협응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해주는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 하였다. 양은주, 강민선, 정승일(2009)의 연구에서도 또래들과 함께 하는 합주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증대시켜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여 인격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악합주활동은 관계적인 기술능력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써 아동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다.

## 2) 기악합주활동과 또래 관계와의 연계성

또래들과 함께 하는 합주활동은 감정적으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한다(김종인, 2004).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룹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관계 속에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더불어 그룹합주활동은 리듬과 박자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들만이 느꼈던 모든 문제들과 또래간의 관

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음악을 통해 감소(오상규, 2006)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심수민(2008)은 합주를 통한 경험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여러 명이 하나의 소리를 이뤄냈을 때의 만족감과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무라이 야스지(1991)는 또래들과 함께 하는 음악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체험과 타인이 필요로 하는 감정을 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의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주를 통하여 또래들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상호작용 기술을 익히게 되고, 그룹원들의 연주와 감정표현을 통해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적 욕구 통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현경(2011)은 기악합주활동에 대해 함께하는 그룹원 서로 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곡의 전체적인 조화를 느끼며 음악적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또래 관계 안에서의 관계적 형성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기악합주와 관련하여 또래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음악치료의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또래 관계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은 최근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또래 관계 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황은(2008)은 또래집단미술치료(Peer Group Art Therapy : PGAT)프로그램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기술영역과 의사소통과 더불어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홍정아(2013)는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정서학습이 아동들의 또래지원의 하위요인인 참여활동, 양보, 공동체 의식요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분산된 활동을 통한 복수 또래 중재를 사용한 조윤경(2001)의 연구에서도 또래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생 및 그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박진재(2002)의 연

구에서도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을 사용 후 또래수용도가 낮은 중재 대상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또래 관계 기술과 관련된 하위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래협동 음악극활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이인원, 최기영(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또래협동 음악극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아동들이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적응능력이 더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지혜, 윤덕순(2011)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ADHD아동에게 노래, 악기활동, 즉흥연주 등의 다양한 음악치료 기법을 사용한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공격성, 주의집중력, 사회기술의 협동성, 자기주장, 자기통제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한규(2002)의 연구에서도 집단치료놀이의 중재가 가출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또래와 협동하는 능력 등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윤희(2007)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노래하기, 악기연주, 송라이팅, 가사토의, 음악극, 노래에 맞추어 율동하기 등의 다양한 음악치료활동으로 구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동의 자기인식 영역, 자기조절영역, 대인관계 영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동기부여 영역과 감정 이입에 관련된 영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의 결론 부분에 있어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음악치료활동 안에서의 다양성보다 한 가지의 음악치료기법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래들과 함께하는 기악합주활동은 그룹적 환경 안에서 사회화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이상적이다. 그룹의 일원들이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같은 박자에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다. 함께하는 합주활동 안에서 또래들과 음악 만들기를 수행할 때 개별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며 연주과정 안에서 지시대로 본인의 연주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활동 안에서 또래아동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협동심, 책임감, 그리고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절제력과 타인과 융화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소재의 D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중 경제적 수준과 가정형편이 유사한 취약계층의 공통점을 지닌 아동들로 선별하였다. 해당 아동들에게 또래 관계 기술 척도지를 사용하여 점수가 낮은 수준인 60점 이하인 아동 14명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정된 14명의 대상자는 각각 일련의 번호를 뽑게 하고 짝수번호는 통제집단으로 홀수번호는 실험집단으로 각각 7명으로 배정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제작한 또래 관계 기술 척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주도성 9문항, 협동/공감 10문항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도성 문항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동을 기술하는 주도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협동/공감 문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래와 물건

을 공유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협동 문항과, 또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기술한 공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런 편이다(2점), 자주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문항 평균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 기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 관계 기술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1$ 이었으며,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주도성 .77, 협동·공감 .74로 나타났다.

<표1> 또래 관계 기술 척도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주요내용	신뢰도
주도성	9	1,3,4,7,10,12,14,15,18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압력이나 갈등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85
협동/공감	10	2,5,6,8,9,11,13,16,17,19	또래를 도와주기, 물건을 공유하기, 규칙 따르기, 또래와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의 감정표현하기	.86
계	19	1-19		.91

## 2)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교사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사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Gresham과 Elliott(1993)이 개발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85이며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협동, 자기주장, 책임감, 공감, 자기통제로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가 아닌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4개 문항(11,16,20,28)을 제외한 26문항을 사용하도록 한다.

<표2>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교사용)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주요내용
협동	7	8,9,15,21,26,27,29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 규칙이나 지시에 따르기
자기주장	10	2,3,6,7,10,14,17,19,23,24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소개하기, 친구의 억압과 모욕에 대응하기
자기통제	9	1,4,5,12,13,18,22,25,30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친구의 괴롭힘에 참을 줄 알기
계	26	1-30	

### 3. 연구 설계 및 절차

####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설계를 하였다. 합주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의 또래 관

계 기술을 측정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총 12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종결 후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표3> 연구 설계 모형

사전 검사	프로그램 적용	사후 검사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사회적 기술평정 척도-교사용	실험집단 7명에게 주 3회씩 총 12회기 세션을 진행	또래 관계 기술척도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교사용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전의 D지역 아동센터에 소속된 초등학교 아동 7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3회기씩 50분간 총 12회기동안 지역아동센터 기관 내의 프로그램실에서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2013년 4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사후검사는 5월 3일 마지막 세션 종료 후 바로 이루어졌다. 사전 사후 검사는 지역아동센터 담당 선생님과 함께 일대일로 아동을 만나 검사지를 제공하고 아동 혹은 교사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4.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 1)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초기단계(1~2회기), 활동단계(3~10회기), 종결단계(11~12회기)의 총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단계별 목표를 살펴보면, 초기단계에는 ‘나’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그룹원들간의 친밀감, 소속감 및 관계형성을 목표로 한다. 활동단계에는 ‘너와 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 외에 타인에 대한 인식, 올바른 언어 및 감정표현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우리’의 개념으로 또래와의 협동심증진 및 자기조절 및 자아통제 능력향상을 목표로 세웠다. 기악합주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세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 참조).

<표4>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세션 구성

시간	구성	활동 내용
5분	인사노래 및 친밀감형성	인사노래와 함께 아동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오늘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40분	프로그램 주 활동	각 회기별 목표에 따라 합주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5분	마무리 노래 및 활동정리	세션을 정리하고 그날의 활동에 대한 간단한 느낌을 표현하도록 한 후 인사노래로 마친다.

## 2)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의 향상을 위한 중재 도구로 사용된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각 단계별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표5>참조).

<표5>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단계	회기	목적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초기 단계 <‘나’>	1	친밀감 및 관계형성, 소속감 형성	- 인사노래 창작하여 불러보고 그룹으로 나누어 악기로 파트나누어 표현하기	· 인사노래를 그룹원들과 함께 만들어 부르는 활동을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 형성, 유사점과 차이점 인정 및 수용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차은선, 2011).
	2	친밀감 및 자긍심 향상	- 음악 리듬게임 및 그룹원 별칭과 주어진 박안에서 각 그룹만의 특별한 리듬 만들어 합주하기 <타악기중심>	· 음악을 이용한 게임활동은 즐거움을 제공하고 더 편안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타악기를 사용한 연주활동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써의 자아표현에 필요한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다(한지현, 2005).
활동 단계 <‘너와 나’>	3	교류적인 악기 연주 경험, 성취감, 타인인식	- 자일로폰으로 하나의 곡 완성하여 연주하기 <도레미송>	· 교류적인 연주의 경험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서 감정표현의 형식을 제공하며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한다(성현영, 2012).

4	리더의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인식, 지시 수용 능력	- 그룹별 주어진 음악 안에서 미니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보기 <아가씨들아, 샹젤리제>	· 지휘자로서의 리더 경험은 아동의 자존감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에 도움을 주며 타인을 인식하며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오상규, 2006).
5	성공적인 연주 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	- 콰이어 차임 합주 <Over the Rainbow>	· 그룹원들과 함께 하는 차임 합주의 경험은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 자기 조절력을 갖도록 돕는다(최애나, 2007).
6	타인 인식 및 규칙 따르기	- 가락악기<리코더, 하모니카, 실로폰, 멜로디언, 핸드벨, 자일로폰 등>를 사용한 화음 경험하기 <Heart and Soul>	· 화음을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음색과 리듬의 조화의 묘미를 경험토록 한다. 또한 다른 성부의 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타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조정은, 2010).
7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성취감 향상	- 팀끼리 상의하여 가락악기/리듬악기 중 선택 후 반복되는 리듬을 활용하여 창작하여 그룹 합주하기 <젓가락 행진곡>	· 그룹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조정은, 2009). 또한 팀 활동은 자신이 속한 팀원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안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8	성공적인 음악 경험, 교류 능력 향상	- 핸드벨 합주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 핸드벨의 맑은 음색은 각 아동들에게 차분함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또한 그룹원들과 서로 교류하며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다.

	9	기 다 리 기 및 지시 수용 하기	주어진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의 오스티나토를 만 들고 그룹원들끼리 합주 로 곡 완성하기 <Summer-히사이시조>	· 오스티나토는 개인을 그룹으 로 통합시킴으로써 음악적 경 험이 없이도 그룹원들과의 합 주가 가능하도록 돕는다(이효 겸, 2009).
	10	성취감, 언 어적 의사 소통 능력 및 자기주 도성향상	- 5개의 그림 컷을 아동 들에게 제공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 후 간단 한 미니음악극 만들기	·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 과정 을 통해 아동들은 성취감과 자 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학습적인 기술에서 서로 언어 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구사력과 발표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동주, 2011).
종 결 단계 <‘우 리’>	11	협동심 및 자기조절 능력향상	- 음악을 들려준 후 서 로간의 토의를 통해 기 악합주 악보를 만들고 합주활동하기 <아름다운 세상>	· 각자 자신이 맡은 악기를 지 휘에 맞추어 연주하고, 타인의 악기소리를 들으며 함께 연주 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력 과 자기통제의 경험을 하게 된 다(김재원, 문수백, 2011).
	12	협동심 및 성취감 향상	- 간단한 동화를 들려주 고 동화내용에 맞게 그 룹토의를 통해 합주. 악 보 구성하기 및 연주하 기	· 토의를 통해 함께 음악을 만 들고 연주하는 활동은 인간관 계를 돈독히 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을 기를 수 있도 록 돕는다. · 합주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 과 조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나 아가 바람직한 사회성의 발달 을 도모하고 향상시켜줄 수 있 다(김선하, 2009)

## 5. 자료 분석

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버전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은 각각 7명으로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래 관계 기술 점수와 또래 관계 기술 하위 영역, 사회성 기술 평정 척도 점수와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하위 영역 점수 각각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검정은 Mann Whitney의 U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 전과 후의 또래 관계 기술 점수,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점수의 하위 영역 각각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정은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2회기 간의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전과 종결 후에 대상아동과 교사에게 각각 또래 관계 기술 척도와 사회성 기술 평정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를 통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 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 관계 기술 점수와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IV-1>, <표IV-2>와 같다.

<표6> 또래 관계 기술 척도에 따른 동질성 검사 결과

구분	집단	N	평균	U	p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실험	7	7.14	22.00	.805
	통제	7	7.86		

\*P<.05

두 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점수의 평균비교에 대한 Mann Whitney 검정 결과는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 7.14 점이며 통제집단 7.86점, U값은 22.00이며 유의확률이 0.8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7>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에 따른 동질성 검사 결과

구분	집단	N	평균	U	p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실험	7	6.79	19.50	.535
	통제	7	8.21		

\*P<.05

두 집단의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점수의 평균비교에 대한 Mann Whitney 결과는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 6.79이며 통제집단 8.21점, U값은 19.50이며 유의확률이 0.535로 두 집단의 사전 사회적 기술평정 점수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또래 관계 기술 척도와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의 두 집단 사이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 2. 가설 검증

- 1) 가설 1-1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차를 구한 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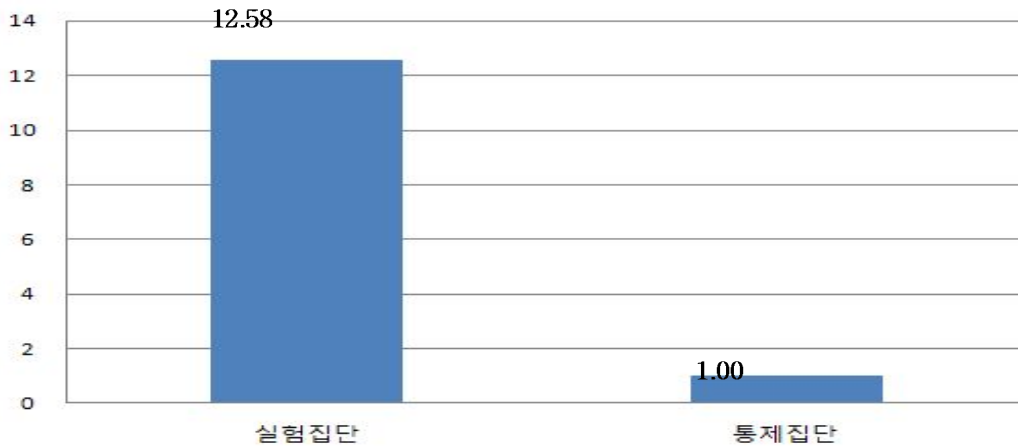
<표8> 두 집단 간 또래 관계 기술 점수 검증 결과

집단	M	SD	U	p
실험집단	12.58	1.81	0.00	0.001*
통제집단	1.00	-1.00		

\* P<.05

위의 <표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또래관계 기술 점수는 평균 12.58점이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 점수는 평균 1.00점 증가하였다. 유의수준 p값은 0.001로 두 집단 간 또래 관계 기술 점수의 변화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1은 지지되었으며,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 치료가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 장의 <그림2>와 같다.



<그림2> 집단 간 또래관계 기술 점수 차이

2) 가설 1-2 : 실험집단은 또래 관계 기술 척도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점수 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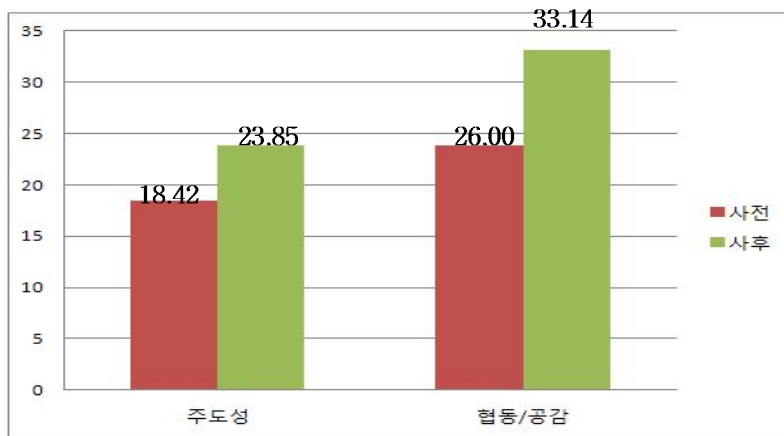
실험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차이

구분	하위 요인	또래관계 기술점수	M	SD	평균순위	Z	p
실험집단	주도성	사전	18.42	1.61	0	-2.388	0.017*
		사후	23.85	2.19	4		
실험집단	협동/ 공감	사전	26.00	4.86	0	-2.384	0.017*
		사후	33.14	4.29	4		

\* P<.05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의 하위영역 중 주도성의 사전 평균점수는 18.42 점, 사후 평균점수는 23.85점으로 5.43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하기 위해 Wilcoxon 검정을 한 결과, 실험집단의 p값은 0.01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그리고 사전 평균 순위 값은 0이고 사후 평균 순위 값은 4이므로 사후 주도성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의 하위영역 중 협동/공감의 사전 평균점수는 26.00점, 사후 평균점수는 33.14점으로 7.14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검정을 한 결과, 실험집단의 p값은 0.01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또한 평균 순위 값도 사전에는 0에서 사후에 4로 상승되어 사후 협동/공감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또래 관계 기술의 하위영역인 주도성과 협동/공감영역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3) 가설 2-1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기술 척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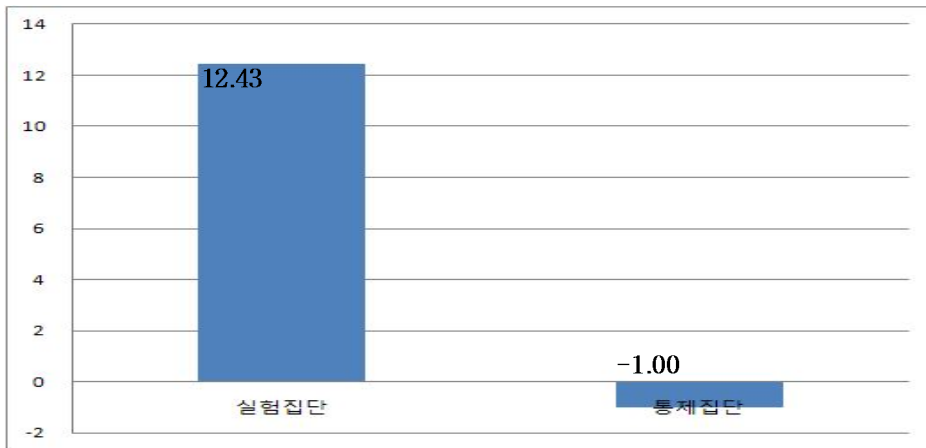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기술 척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차를 구한 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두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점수 사후-사전 검증 결과

집단	M	SD	U	p
실험집단	12.43	1.61	0.00	0.001*
통제집단	-1.00	1.15		

\*  $P < .05$

사회적 기술 점수의 경우에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12.43점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는 -1.00점이 감소하였다. 유의수준 p값은 0.001로 두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점수의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설 2-1은 지지되었으며,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 장의 <그림4>와 같다.



<그림4>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점수 차이

4) 가설 2-2 : 실험집단은 사회적 기술 척도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점수  
 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실험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  
 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 장의 <표11>와  
 같다.

<표11> 실험집단의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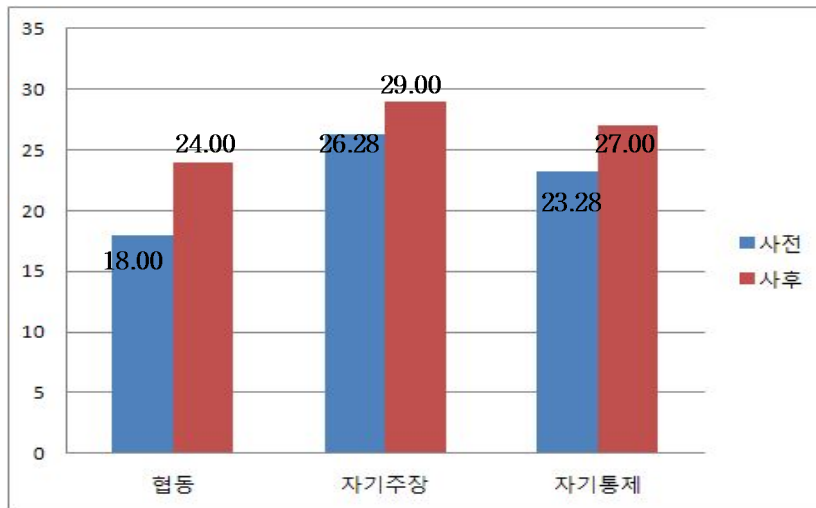
하위 요인	구분	또래관계 기술점수	M	SD	평균순위	Z	p
협동	실험 집단	사전	18.00	3.65	0	-.2.384	0.017*
		사후	24.00	4.04	4		
자기주 장	실험 집단	사전	26.28	4.78	0	-.2.379	0.017*
		사후	29.00	4.16	4		
자기통 제	실험 집단	사전	23.28	3.25	0	-2.388	0.017*
		사후	27.00	3.91	4		

\*P<.05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의 하위영역 중 협동의 사전 평균점수는 18.00점, 사후 평균점수는 24.00점으로 6.00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하기 위해 Wilcoxon 검정을 한 결과, 실험집단의 p값은 0.01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리고 사전 평균 순위값은 0 이고 사후 평균 순위값은 4이므로 사후 협동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또래 관계 기술의 하위영역 중 자기주장의 사전 평균점수는 26.28점, 사후 평균점수는 29.00점으로 2.72점이 증가하였으며 하위 영역 중 자기통제의 사전 평균점수는 23.28점, 사후 평균점수는 27.00점으로 3.72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한 결과, 자기 주장, 자기통제 요인의 실험집단의 p값은 각각 동일하게 0.017로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평균 순위 값도 자기주장, 자기 통제 영역이 동일하게 사전에는 0에서 사후에 4로 상승되어 사후 자기주장, 자기통제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약함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 자기주장, 자기통제영역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실험집단의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2회기의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중재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대전시 D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 중 또래 관계 기술 척도지의 점수가 60점 이하의 아동 14명을 선별 후 각각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또래관계기술 변화의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이전과 프로그램 종결 후 대상기관 아동들에게는 또래 관계 기술 척도를, 기관의 담당 교사에게는 수정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교사용)검사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Mann Whitney U 검정과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을 시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종결한 후에 대상 아동에게 실시한 또래 관계 기술 척도에서 대상자들의 평균점수는 44.42점에서 57.00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 관계 기술의 하위요인인 주도성과 협동/공감 요인의 점수도 주도성은 평균 18.42점에서 23.85점, 협동/공감은 26.00에서 33.14점으로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1-1과 1-2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성취감 고취, 자기주도적인 의사표현, 지시수용능력,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협동작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종결한 후에 지역아동센터의 기관의 담당 교사에게 실시한 수정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교사용) 검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점수가 67.57점에서 80.00점으로 상승하였다. 하위요인인 협동, 자기주장, 자기통제 요인에서의 점수도 상승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2-1과 2-2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활동이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허혜진, 2010; 문지연, 2006; 주호주, 2012; 이하나 2010)과 일치하며, 음악활동이 사회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최애나, 2007; 김현정, 2012; 김선하, 2009; 조정은, 2012)과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또래들과 함께 하는 기악합주의 과정 안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며 그 속에서 자신 및 타인의 생각을 조율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공동의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경험으로부터 또래 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션 초기에는 대상자들이 또래들과 함께 연주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그룹원들과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 그룹원들과 서로 맞추어가며 합주를 하는 과제를 어려워하는 등 다양한 부정적 반응이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아동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개선이 됨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주도적으로 표현하고 그룹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며 음악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사회적인 영역의 향상을 위한 심리적 지원 도구로서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더불어 이용아동들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학령기 아동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올바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 즉 또래들간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올바른 소통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과정들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올바른 또래관계형성과 사회적인 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아동기의 바람직한 발달과제 수행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그룹구성 여건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집단이 각 7명이라는 적은 사례수로 국한이 되었기에 이 연구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집단의 대상을 좀 더 확장하고 다양한 대상자들을 연구하여 치료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전체 치료의 회기가 총 12회기로 구성되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후속의 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또래 관계 기술의 한 가지 영역만이 아닌 사회적인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하위요인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중재를 사용하여 또래 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음악적인 다양한 효과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의 다양한 장점들과 기법들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원만한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 뿐 아니라 아동들의 행동 및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강문희 (2004). **아동발달**. 서울 : 교문사.
- 공창숙 (2008).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가족복지전공 박사 학위논문.
- 구은미 (201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과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아동교육**, 19(2), 5-15.
- 권오인 (2002).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권주희 (2010).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권택영 (201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주시. 포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관일, 박인수 (2003). **기악합주가 정인지체아의 사회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초등특수교육연구**, 5(1), 29-60.
- 김동주 (2011). **창의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습동기 증진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전공 박사 학위논문.
- 김미영 (2001).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지**, 4(1), 15-29.
- 김민욱 (2012). **새학기 맞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중부일보

(2012년 3월 9일)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수민 (2006). **합주부 활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 조용태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 경향. *대진논집*, 6, 97-114.
- 김재원, 문수백 (2011). 리듬합주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65-87.
- 김정열 (2012).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의 이해수준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정다운 (201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67-981.
- 김종인 (2004).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서울 : 지식산업사.
- 김종인 (2005). **음악치료 약기론**. 서울 : 지식산업사.
- 김현경 (2011). **기악합주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연구 : 교회 청소년 기악합주단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2). 오르프 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공학*, 15, 73-86.
- 무라이 야스지 (2003). **음악요법의 기초**. 서울 : 삼호뮤직.
- 문지연 (2006).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도현심 (2002). **아동발달**. 서울 : 동문사.
- 박종란 (2012). **빈곤아동의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박지영 (2002). **합주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2012). **유아의 정서조절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음악치료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진재, 이은혜 (2002).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지**, 22(2), 83-111.
- 박혜신 (2003). **빈곤가족의 빈곤문화 : 빈곤가족의 가족사와 빈곤가족아동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 서영숙, 허정경, 오현주 (2004). **방과 후 아동지도론**. 서울: 양서원
- 서유나 (2006).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우암논총학술지**, 28, 127-145.
- 서현주 (2004). **교회 기악합주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성자영 (2011).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1(2), 45-71.

- 성현영 (2012). 음악치료활동을 통한 특수아동의 도덕성 발달 실증 연구 : ADHD, 정인지체, 자폐성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 손명희, 오정숙, 김현영(2007).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놀이중심 인지재구조화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복지행정학회**, 17(1), 177-201.
- 송 숙 (2008). 지역아동센터의 정규운영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신미경, 정규진, 최애나 (2012).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221-237.
- 신이선 (2012). 아동의 환경적 특성과 행동의도가 심리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 신지혜, 윤덕순 (2011).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ADHD 성향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사회적 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37-158.
- 심경순, 박영준(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서비스 욕구 및 문제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165-191.
- 심수민 (2008). 초등학생의 관현악 합주 활동이 인지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음악응용연구**, 1, 87-105.
- 안지선 (2011).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자기분화와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가족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24(4),

961-971.

- 양은주, 강민선, 정승일 (2009). 중·고등학교 대중음악 합주 프로그램 모형개발. *음악교육연구*, 37, 113-138.
- 이경림 (2007). 빈곤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족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사업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미연 (2005). 초등학교 기악 합주활동이 음악 표현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이현림 (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7(2), 223-230.
- 이영주, 이주영 (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안산시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7(2), 53-77.
- 이인원, 최기영 (2006). 또래협동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77-99.
- 이종화 (201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주 양육자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복지 주거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하나 (2010). 음악활동이 취학 전 유아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7). 외동이의 태도변화를 위한 오스티나토 리듬합주활동.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사회성 향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황은 (2008). **또래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훈, 신혜중 (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7-193.
- 임영희 (2002).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오상규 (2006).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 및 상담전공 박사학위논문.
- 유덕희 (1994).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 개문사
- 유희정 (1997).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 9, 93-121.
- 윤지현 (2004). **혼자 노는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향상 프로그램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재활과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윤향미 (2007). **방과후 프로그램의 저소득층자녀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 윤혜순 (2009).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실(에듀케어) 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100-119.
- 장혜성 외 (2007).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 전소은 (2011). **집단 난화상호이야기법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재활심리학과 미술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은나 (2006). **중학교 남학생의 음악교과 인식변화를 위한 지도방안 : 중학교 1학년 기악합주 수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박현선, 오승환, 임정기 (2009). **아동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고양 : 공동체.
- 정현희 (2008).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미술 치료 사례. **한국미술치료학회지**, 15(3), 445-467
- 정혜원 (2008).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초등상담연구**, 7(1), 37-66
- 정효숙 (2008).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KJMT**, 7(1), 26-56
- 조원석 (2001). **타악기 소도구를 활용한 고등학교 음악 교육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은희 (2009). 집단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 플루트 앙상블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47-167
- 조정은 (2009). ADHD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69-188.
- 조정은 (2012).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이 ADHD성향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공학**, 14, 227-244.
- 주효주 (2012).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극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2).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조사**.

- 차은선 (2011). 집단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자기통제, 사회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보건의학대학원 예술치료전공 박사학위논문.
- 천유리, 한기순 (201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및 관계유지노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2(4), 875-892.
- 최성희 (20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특성요인 및 직무만족도를 통한 조직 몰입의 관계. 한영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최애나 (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학위논문.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7(1), 43-69
- 홍정아 (2013).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정서학습이 통합학급 학생들의 정서지능, 또래지원 및 또래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Angus, C., Philip, E. C., & Willard, L. R.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Asher, S. R., & Coie, J. D. (1990). *Peer rejection in childre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Hymel, S. (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 :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D. Wine & M.D. Smye(Eds), *Social competence*, 125-157.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Bailey, L. M. (1983). The effects of live music versus tape-recorded music on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Music Therapy. Music therapy, 3*(1), 17-28.
-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 264-278.
- Dodge, K.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Elloitt, S. N., & Gresham, F. M. (1993). Social skills interventions for children. *Behavior Modification, 17*, 287-313.
- Goldberg, F. (1989). Music Psychotherapy in acute Psychiatric inpatient and private practice setting.. *Music therapy perspectives, 6*, 40-43.
- Gottman, J. M., Gonso, J., & Rasmussenm. R.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O'conner, R. D. (1972). The relative efficacy of modeling, shaping, and the combined procedures for modification of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9*, 327-334.
- Prizant, B. M., & Wetherby, A. M. (1990). Toward an integrated view of early language 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Topics language disorders, 10*(4), 1-16.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CA : Wadsworth.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kaccc.org>

2013년 4월 5일 검색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http://www. icareinfo.info/](http://www.icareinfo.info/)

2013년 3월 15일 검색

## 부 록

<부록 1> 또래 관계 기술 척도

<부록 2>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교사용)

<부록 1>

## 또래 관계 기술 척도

이름 : ( )

다음은 여러분들의 평소생활 중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답은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각 항목을 신중하게 읽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가장 가까운 답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한 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①, 별로 그렇지 않지만 가끔 그럴 경우엔 ②, 자주 그런 편이면 ③, 항상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④에 표시해주세요.

	전혀 없었 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아이에게 빌린 물건을 아껴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내 순서를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6. 조별 활동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작업(예: 공부, 숙제 등)을 할 때,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7.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친구하자”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8. 나를 도와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실수를 한 경우에는 실수를 했다고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10.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으면 그 놀이에 끼워달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1. 친구들이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2.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다른 아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경우에 미안하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4. 모르는 아이를 만나면 내가 먼저 나에게 대해 소개를 한다.	①	②	③	④
15. 친구에게 숙제를 함께 하자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아이에게 내 물건을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게임에서 졌더라도 이긴 친구에게 게임을 잘한다고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에게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19. 게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6. 적당한 때에 자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7. 활동에 친구가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①	②	③	④
8.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9. 정해진 시간 내에 학습과제를 마친다.	①	②	③	④
10. 친구를 쉽게 사귀다.	①	②	③	④
11.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와의 대화를 잘 이끌어간다.	①	②	③	④
13. 친구가 놀릴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적절하게 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15.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길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집단 활동 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7. 친구를 칭찬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8. 학습 자료나 비품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19. 축구 없이도 친구와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20. 학급활동 시 자발적으로 친구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21. 진행 중인 활동이나 집단에 스스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2. 친구가 밀거나 때릴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23. 학급활동을 하는 동안 친구의 방해에도 자신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24. 스스로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한다.	①	②	③	④
25. 활동이 바뀌어도 쉽게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26.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 ABSTRACT

## **The Effect of Music Therapy with an Instrumental Ensemble on Children in a Local Community Child Center**

Hye Jung Kim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looked at the effect on Children's relationship skills of a music-therapy program based on participation in an instrumental ensemble. The study's subjects comprised 14 children: 7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7 in the control. All had scores under 60 points for same-age relationship skills in a local community child center in Daejeon, South Korea.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over a 12-session period, 3 times per week, from April 5 to May 3, 2013. Pre- and post-treatment evaluations measured subjects' same-age relationship skills and used a modified version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to determine how therapy affected subjects' same-age

relationship skill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e analysed data using with Mann -Whitney checking and Wilcoxon's code-rank checking.

The therapy was aimed at improving the children's 1) fulfillment and recognition of others through experiencing interchange performance, 2) positive self-awareness and self-identity, 3) self-directed expression, 4) capacity for instruction, 5)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6) teamwork.

The experimental group improved more than the control group did, according to pre-and post-treatment measures. This finding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involving participation in an instrumental ensemble, as an effective arbitration tool for improving the same-age relationship skills of children in local community child centers.